

흔들린 삼성의 천적관계 리그 순위표는 요동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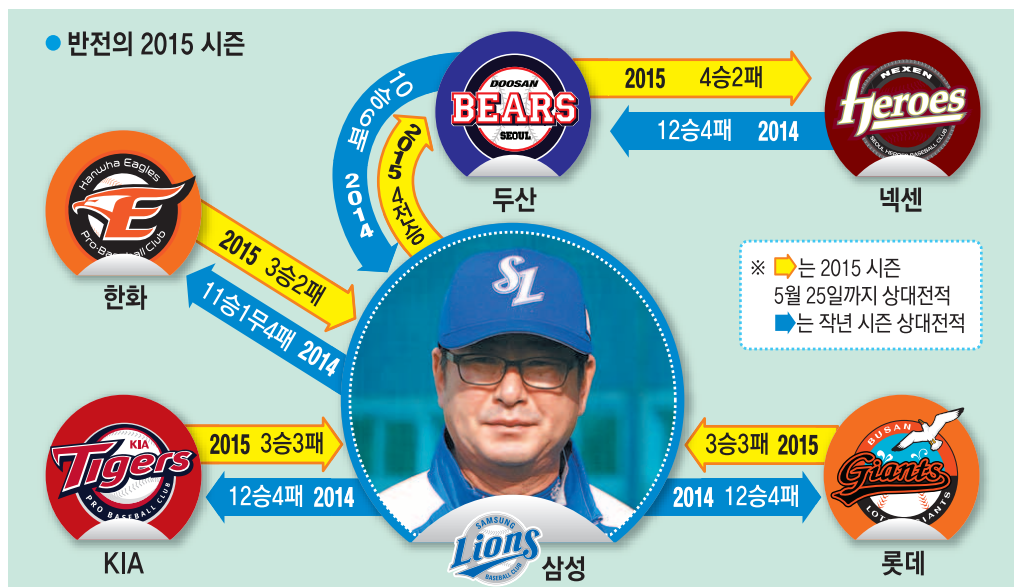
베이스볼 브레이크

지난해 삼성에 약했던 롯데·KIA·한화
올해 막상막하 전적 '레이스 새변수'로

삼성에는 지난 주말(22~24일) 광주 원정에서 KIA에 1승2패로 밀리며 1위 자리를 두산에 내줬다. '선발야구'를 자랑해온 삼성이지만, 오히려 KIA가 23일 1-0에 이어 24일 2-0 등 이를 연속 완봉승을 거두며 극적인 반전을 낳았다.

5년 연속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우승에 도전하는 삼성의 힘은 '잡을 팀은 확실히 잡고 간다'는 데서 나온다. 이른바 '천적관계'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승리를 쌓아왔다. 이는 지난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삼성은 KIA와 롯데를 맞아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두 팀에 똑같이 12승4패로 앞섰다. 끝까지 한화도 11승1무4패로 공략했다. 삼성은 지난 시즌 78승3무47패로 패넌트레이스 1위를 차지했는데, 승패의 차에서 +31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천적관계의 이득 3개 구단을 상대로만 +23을 작성했다. 삼성은 2013년에도 KIA와 한화에 12승(4패)씩을 챙겼다.

그러나 올해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른 양상이다. 먼저 롯데, 삼성은 4월 7~9일 안방 대구에서 롯데전 스윙을 달성하며 지난해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약 보름만인 4월 24~26일 사직 원정에서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했다. 5년 만에 롯데에 3연전 스윙을



당했다.

삼성은 12~14일 대구 한화전과 지난 주말 광주 KIA전에서도 잇달아 루징시리즈를 기록했다. 이로써 삼성은 올 시즌 롯데, KIA와는 3승3패로 동률에 머물고 있고 한화에는 2승3패로 오히려 열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화와 KIA에 단 한 차례도 루징시리즈가 없었기에 더 충격적이다.

반면 지난해 6승10패로 뒤졌던 두산을 맞아 삼성은 올 시즌 4전승을 기록 중이다. 천적인 두산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에게는 지난해 7경기에서 5승을 내줬으나, 올해는 첫 맞대결이었던 21일 잠실 원정에서 패전투수로 내몰며 6-1로 이겨 두산전 4연승을 내달렸다.

두산은 이처럼 올 시즌 삼성에 4전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감싸야 했지만, 지난 주말 SK를 잠실로 불러들여서는 호되게 두들겼다. 3연전을 싸늘이하며 선두 복귀의 발판으로 삼았다. 또 지난해 4승12패로 약했던 넥센을 상대로 올 시즌에는 벌써 4승(2패)을 거뒀다.

넥센은 고질적인 천적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NC에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시즌 최다인 4연패에 빠졌다. 지난해 NC에 5-24로 대패하는 등 5승11패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올해도 4경기에서 전패를 당했다. 그래도 LG와 KIA를 맞아서는 5승(1패)씩을 거두며 NC전 4전패의 손실을 훨씬 웃도는 이득을 보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김경문감독 “실력은 기본…절실함을 본다”

■ 감독들의 세대교체 기준

류중일감독 “수비·변화구 대처능력 잣대”

LG가 어쩔 수 없는 세대교체에 돌입했다. 주전인 이병규(9번·41), 이진영(35), 손주인(32), 정성훈(35)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신예들이 대거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박용택(36)은 엔트리에 남아있지만 허리 부상으로 정상적 경기 출장은 어려운 형편이다.

LG는 원래 베테랑들이 이끄는 팀이라는 색깔이 강했다. 실제 이들이 중요한 순간 제 역할을 해주며 팀의 중심을 잡아줬다. 그래도 한편에선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년간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려고 애썼지만, 1군에서 기회를 잡은 선수는 오지환과 이병규(7번) 정도다. 따라서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9위로 떨어졌다는 상황에서 주전들의 공백은 뼈아프지만, 베테랑들이 부상에서 복귀하기까지 대체재원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대교체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감독들은 “주전 1명을 키워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스카우트 단계부터 중요하지만, 결국 선수를 키우는 것은 1군 무대에서다.

선수를 보는 눈도 필요하다. 세대교체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NC와 삼성의 경우도



NC 김경문 감독

될 성 부른 떡잎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 배영섭, 박해민, 구자욱 등 걸출한 선수들을 발굴해낸 삼성 류중일 감독은 “새로운 선수의 가능성은 첫 번째가 수비다. 수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타격을 잘해도 반쪽짜리 선수가 된다”며 “그 다음에 타석에서의 모습, 변화구 대처, 어이없는 볼에 스윙하는지 안 하는지 등 세부적인 분석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나성범, 이종욱, 손시현 등 두산과 NC에서 이름값에 상관없이 선수를 기용해 국가대표로 키워낸 NC 김경문 감독은 “절실함을 본다”고 밝혔다. 실력은 기본이고, 이와 더불어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 감독은 “열심히 안 하는 선수는 없다. 기회를 잡으려고 얼마나 더 달려드느냐를 본다”며 “2군에서도 열심히 하는 선수면 언제든지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LG 이진영은 부상 탓에 26일 1군 엔트리에 빠졌지만 후배들을 향한 격려는 잊지 않았다.

스포츠동아DB



별 기대를 걸지 않았던 투수들이 144경기 체제에서 일찌 피칭을 펼치고 있다. 넥센 베테랑 송신영을 비롯해 두산 신에 진야곱, NC 베테랑 박명환과 손민한(오른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대표적이다.



별 기대를 걸지 않았던 투수들이 144경기 체제에서 일찌 피칭을 펼치고 있다. 넥센 베테랑 송신영을 비롯해 두산 신에 진야곱, NC 베테랑 박명환과 손민한(오른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대표적이다.

조연들의 재발견…144경기체제서 뜬 투수들

손민한·박명환 NC 베테랑 나이 잇은 호투
송신영·진야곱도 기회 잘 살려 선발진 한몫

손민한, 박명환(이상 NC), 송신영(넥센), 심수창(롯데), 진야곱(두산), ….

이들은 팀당 144경기 체제가 시행되는 첫 시즌 최고의 수혜자로 꼽을 만하다. ‘늘어난 경기수’가 한물갔다고 평가받은 베테랑투수들과 성장을 기대했지만 아직 빛을 못 본 투수들을 위한 스토리텔러(story-teller)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44경기 체제는 지난해 7월 8일 KBO 이사 간담회에서 결정됐다. 팀당 128경기에서

144경기, 전체 576경기에서 720경기로 경기수가 크게 늘어났다. 우려했던 대로, 현장에선 ‘질’의 저하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현장 감독들은 선수층이 얇은 데다 고졸이나 대졸 신인들을 수년간 직접 키워야 하는 만큼 난색을 표했다. 감독의 시즌 구상과 셈법이 복잡해진다는 것도 반대 이유였다.

반면 일각에선 시장규모 확대를 반겼다. 그 대신 기존 1군 엔트리를 26명 보유·25명 출전에서 1명씩 늘렸다. 선수들의 활용폭을 좀더 넓힐 수 있지만, 팀마다 선수간 실력차를 매울 수 있을지 고민도 앞섰다. 제10구단 kt의 합류로 9개 팀이 번갈아 휴식일을 가졌던 이점도 사라졌다.

그러나 휴식일 때문에 불규칙했던 4·5선발

의 등판 기회가 올 시즌 안정을 찾으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꾸준히 로테이션을 매워줄 적임자 찾기에 골몰했고, 검증된 베테랑투수들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투수들이 속속 로테이션에 진입했다. 손민한(40)은 8경기에 선발등판해 5승3패, 방어율 4.06을 기록하며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송신영(38)도 선발진이 약한 넥센의 5선발로 7경기(6선발)에 등판해 4승1패, 방어율 3.68을 기록했다. 선발투수로 뛰어난 구위를 보여준 심수창(34)은 팀 사정상 마무리투수로 전향했다. 진야곱(26)도 두산의 두꺼운 선발진에 힘을 보태며 주전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편지 | 심수창 기자 sss23@donga.com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달 재할…후배들 응원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베스트 라인업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뛰어라!”

LG 이진영(35)이 후배들을 응원했다. 그는 26일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 제외됐다. 이날 오전 병원에서 ‘근육이 찢어져 2~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회복 이후 재활까지 포함하면 족히 한 달은 결릴 전망이다.

LG로선 약재다. 정성훈, 이병규(9번), 손주인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이진영마저 전열을 이탈했다. 게다가 이진영은 주장이다. LG로선 주전 선수 한 명뿐 아니라 선수단 리더까지 함께 잃게 됐다.

이진영은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 듯했다. 그는 병원 검진을 마친 잠실구장을 찾았다. 허벅지 부상 때문에 여전히 절뚝거리면서도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이날 kt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인 후배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북돋워줬다.

이진영은 “야구도 부진했고, 주장으로서 팀에 누를 끼치기만 해 죄송하다”며 “그래도 후배들이 잘해줄 것이다. 라커룸에서 후배들에게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베스트 라인업이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고참들은 팀이 잘 되길 바라고, 팀을 걱정하고, 팀을 위해 노력한다. 후배들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줄 것이고 믿는다”고 응원했다.

물론 완벽한 복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이진영은 “돌아올 때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만들어 오겠다”며 “완벽하지 않으면 팀에 마이너스가 된다. 올라오면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잠실 | 홍재현 기자

36세 박한이 “이젠 조심조심”

지난달 옆구리 부상 아직도 통증
양준혁 선배 출장기록 경신 야망

“다시 아프지 않게 잘 관리해야죠.” 삼성 박한이(36·사진)는 14년 연속 100경기 출장과 100안타를 동시에 달성한 ‘꾸준함의 상징’이다. 그런 그가 요즘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하고 있다.

이유가 있다. 박한이는 지난달 18일 대구 kt전 도중 펜스까지 날아온 큼직한 타구를 접평 캐치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펜스에 강하게 부딪쳤다. 초기 검진 결과는 단순 타박상. 2~3경기 정도만 빠지면 회복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통증이 계속 심해졌고, 결국 1군 엔트리에선 제외됐다. 알고 보니 오른쪽 갈비뼈에 실금이 가 있었다.

박한이는 최근 “2군에서도 계속 통증이 낫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 보니 뼈에 미세하게 금이 간 상태였다. 처음에는 부기가 너무 심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며 “열흘 정도를 예상하고 2군에 내려갔다가, 그래서 복귀가 늦

어졌다. 최선을 다해 빨리 돌아왔지만, 여전히 통증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박한이는 데뷔 이후 큰 부상이 거의 없었다. 15년간 개막전 엔트리에 빠졌던 것도 단 한 번뿐. 올해의 부상과 이탈은 그래서 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어느덧 3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어 터라 몸 관리에 더 신경해줬다. 은퇴한 양준혁이 보유한 16년 연속 100안타·100경기 출장 기록을 깨겠다는 목표가 확고해서 더 그렇다. 그는 “이제는 더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통증이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성적인 보편이었다가 돌아온 선수 같지는 않다. 1군 복귀 후 25일까지 7경기에 출장해 타율 5할(24타수 12안타), 2홈런, 9타점을 기록했다. 멀티히트만 5경기에 이른다. 통증이 있든, 없든 박한이의 ‘클래스’는 여전하다.

대구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김강민 2군서 훈련…6월초 1군 출장 기대
SK 외야수 김강민(33)이 26일 벽제구장에서 열린 경찰야구단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출장해 3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2삼진을 기록했다. SK의 주전 중견수이자 리

드오프 후보였던 김강민은 프리에이전트(FA) 계약 첫 시즌인 올해 시범경기 도중 왼쪽 무릎 내측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그동안 재활해왔다. SK 김용희 감독은 “6월초 1군 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